



발행처 :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지식서비스연구소 발행인: 박광호

편집 : 김희을, 강지혜, 김은비, 김철민, 박민정, 서예지, 장윤빈, 한상일

Inside Story



- 녹색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사업 수료식
- 경영컨설팅학과 석, 박사과정
졸업 요건 소개

대학원 이야기



-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초청강연
- 스승의 날, 신입생 소품
- 신입생 인터뷰 - 1기 장윤빈

녹색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사업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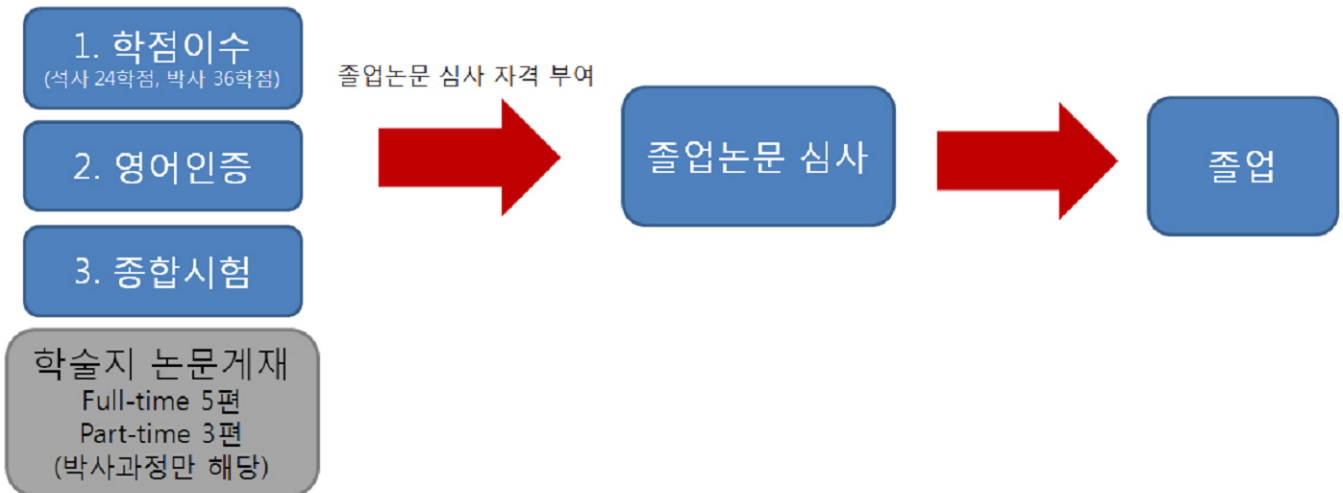
3월 29일부터 진행되었던 녹색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5월 14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 수업이 종료된 후 개최된 수료식에는 한양대학교 박광호 교수님과 한국경영컨설팅협회 전태웅 박사님, 그리고 총 54명의 1차교육 수료생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한편 6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2차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6월 7일 오후 7시에 서울캠퍼스 인문관에서 입학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경영컨설팅학과 석, 박사과정 졸업 요건 소개

학기말이 다가오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졸업이 임박한 학생들의 졸업요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 졸업요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학점이수

졸업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 석사의 경우 24학점, 박사의 경우 36학점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2. 영어인증

영어인증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졸업 인증 영어시험으로 1년에 2번(3월, 9월)에 응시 가능하다. 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며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공지된다. 두번째로 대체 성적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에 한해 일정 성적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3. 종합시험

종합시험의 경우 석사 3과목, 박사 4과목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경영컨설팅학과 필수과목>

컨설팅방법론, 프로젝트관리, 경영연구방법론

※ 종합시험은 위의 학과 필수과목(3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경영컨설팅학과 종합시험 내규>

가. 석사과정 종합시험과목(총 3과목):

컨설팅방법론, 프로젝트관리,

<창의적문제해결, ERP, 기술경영컨설팅, 혁신과변화관리> 중 택일

나. 박사과정 종합시험과목(총 4과목):

컨설팅방법론, 프로젝트관리,

<창의적문제해결, ERP, 기술경영컨설팅, 혁신과변화관리> 중 택일,

<글로벌비즈니스컨설팅, PI컨설팅, 기술가치평가컨설팅, 창조경영컨설팅> 중 택일

※ 종합시험 과목 중 수강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미수강한 과목은 학업연장을 해서라도 반드시 수강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필수과목(컨설팅방법론, 프로젝트관리, 경영연구방법론)은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시 이수하지 않더라도 종합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 외에 종합시험 과목은 반드시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4. 학술지 논문 게재

석사과정과 달리 박사과정의 경우엔 졸업논문 심사 자격을 얻기 위해 학술지 논문게재 여부가 필수적이다. 학과 내규에 따르면 Full-time 의 경우 5편, Part-time의 경우 3편을 게재 (등재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에 한함) 해야 졸업 논문 심사자격이 주어진다.

본 내용은 현재 박사 2기, 석사 2기 이상에만 해당하며 11학번 부터는 새로운 내규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윤은주 선생님(031-400-5036)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학원 이야기 -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초청강연

5월4일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의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수업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정문교 팀장님의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본 수업과 기술혁신전략과 표준화의 수강생을 포함한 30여명의 인원이 본 강연에 참석하였다.



강의의 주제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전략이었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업 혹은 개인이 개발한 특정 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치를 금액으로 측정하는 일이다.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나누자면 첫째,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효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소득접근법, 둘째, 대상기술과

유사한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시장접근법, 셋째, 실물옵션가격의 결정공식에 기술가치평가의 변수들을 적용해 평가하는 실물옵션접근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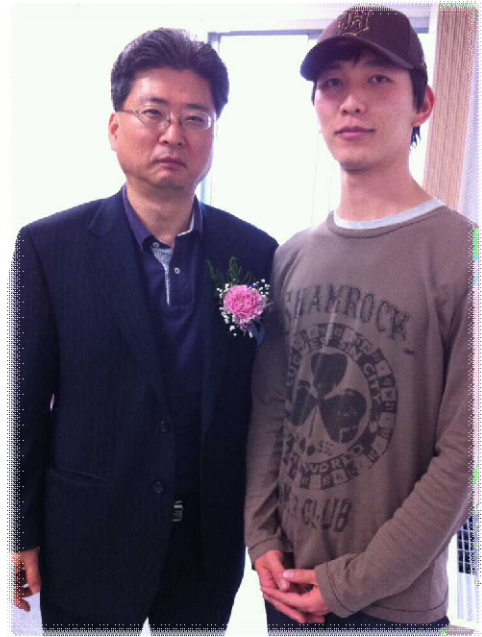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소득접근법 중 하나인 DCF(현금흐름할인)법이다. 이 방법은 먼저 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을 분석한 후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계산한다. 그 후에 기술이 가져올 여유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현재가치를 추정할 할인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도출된 현재가치에 해당 기술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다.

세 시간 여의 강의가 끝난 후 참여인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본 수업의 기존 수강생들은 보다 실무적인 내용의 강의에 만족했으며, 기술가치평가를 처음 접한 참가자들은 이전엔 몰랐던 학문을 접한 호기심이 매우 커 보였으며 질의응답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수업에 열정적인 강의를 보여주신 정문교 팀장님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성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장윤빈 (ybkbjang@naver.com)

대학원 이야기 - 스승의 날, 신입생 소풍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모두들 존경하는 선생님, 교수님께 꽃 한 송이 선물하셨나 모르겠네요. 경영컨설팅학과에서는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그 동안 저희를 성심 성의껏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작은 선물을 드렸답니다. 무척이나 작은 선물이지만 교수님들께서 무척이나 좋아하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영컨설팅학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신입생들은 분당 율동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입학 후 크고 작은 행사는 많았지만 이번 소풍처럼 신입생들끼리 계획하고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다들 설레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습니다.



율동공원에 모두 모인 후 제일 먼저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10인분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은 신입생 중 가장 형님이신 관호형! 놀랍게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유부초밥과 샌드위치, 햄버거, 디저트 등 먹음직스러운 도시락을 무려 10인분이나 혼자 준비했답니다. 도시락을 먹고 한가롭게 햇볕도 쬔고 연구실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며 간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까운 탄천 축구 구장으로 축구관람을 갔습니다. 각자가 응원하는 팀은 달랐지만, 신나게 응원을 하면서 모두가 더욱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김철민 (friend100n@nate.com)

대학원 이야기 - 신입생 인터뷰 <장윤빈>



Q. 간단한 소개와 한양대학교 컨설팅학과의 자랑

A. 석사과정 1기 장윤빈입니다. 저는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컨설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컨설팅학과는 무엇보다 실증적인 수업과 교수님들의 열정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모든 수업들이 학문적 방법론에 매달리지 않고, 현업 사례에 근거를 두어 교수님과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합니다. 일방적인 가르침만 전해지는 수업보다 참여도와 학습 몰입도가 매우 큼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와 관심분야를 접목하여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우리 대학원의 장점은 끈끈한 정과 유대관계입니다. 타 대학원들과 달리 학과 전체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단합을 도모합니다.

Q. 현재 연구주제와 연구를 위한 현재 중점적 사항

A. 현재 기술가치평가컨설팅 분야의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중점적 사항은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CFA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로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목적

A. 온라인 기반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아직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여건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행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타과출신이라 부족한 경영학의 여타영역을 보완하여 컨설턴트의 꿈을 이루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장윤빈 (ybkbjang@naver.com)

※ 경영컨설팅학과 트위터가 개설되었습니다! @hy_consulting
※ 교수님들의 사정으로 이번달 교수님 근황은 쉽니다.